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윤
편집인: 나희주
편집주간: 원필현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가족 여름수련회

D-8

“그리스도인과 세계 공동체”라는 주제하에 갖게 될 전가족 여름 수련회 개최가 앞으로 8일을 남겨두고 있다.

준비위원회(위원장:박철훈 장로)는 지난 7월 13일(수) 수요 II부 예배후 4층에 모여 전체 확대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각 부서별 준비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함께 논의하였다. 준비위원들은 작년에 미흡했던 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새로운 기지들을 모았으며, 이번에는 장년부와 교회학교 부서가 분리 운영되어 각각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 시도를 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교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93 여름

전가족수련회

1993. 7. 26(월)-7. 29(목)

그리스도인과 세계공동체

사명받은 가정,
은혜로운 교회,
의의 나라를 이루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수 24:15)

계속되는 12시간 연속기도회

우리 교회 권사회(회장: 장애희 권사) 주관하에 시작된 12시간 연속 기도회가 날마다 기도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7월12일(월) 오전 10시에 논현 1,2 다락방부터 시작된 기도의 불씨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24일) 계속된다.

온 다락방 식구는 시간을 기억하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열정을

더해야겠다. 기도제목중 새예배당 건축과 온 성도들 가정의 축복, 전가족 여름 수련회의 참여와 은혜, 그리고 9월에 개강될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등은 서울교회 성도들의 노래가 되었다.

12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온 교회는 또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전가족 수련회 초대의 말씀

이종윤 목사

“네 입을 넓게 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시81:10)

우리는 이번 기회에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어 할렙거리기도
해야하고(시119:131)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성령의 단비도 갈구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요
적게 받은 것은 적게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번 여름 가족수련회에 참여하여
여한이 없도록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갈망하고 더 많이 받으려는 대망을 가지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는 이마다
서울교회 여름 가족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찬송을 위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에 인색치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못다부른 노래를
동해의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여한이 없도록 마음껏 불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원망과 불평을 위해서는 주야로 입이 열려 있었지만
찬송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면
형제여, 친구여!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 함께 동해로 갑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증거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함구령 앞에서도 전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치던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잡담을 위해서는 일을 다물줄 모르면서
감사와 증거의 입을 열지 못했던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새 술에 취한 성도들의 입에서 새 방언이 터져나오듯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섬기겠습니다”라는 활어들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같은 경험을 원하시는 이들을 '93 가족수련회에 초청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강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줄 아노라.(요21:24~25)



이종윤 목사

기록된 제자와 기록된 책

요한복음 한권의 책을 가지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은 긴 세월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5년이 아니라 10년을 해도 이 말씀의 깊이와 진리를 다 쫓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마감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1:1) 즉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21:25), 예수 그리스도 끝을 맺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1:15~16)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21:24) 하는 말로 이 증거의 진실됨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거이며 ‘우리는’은 그 증거를 참이라고 믿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요한의 증거를 참이라고 이 시대에 증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본 사람(19:35)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21:20)입니다.

1.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교훈과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여러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다른 종교는 창설자의 이상을 신봉하고 교훈을 좇아 가지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 주셨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으며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복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채택할 경우에 목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1서1:1) 사도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1세기 때에 교회안에는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다니 안 된다고 하며 인간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으로된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영지주의(노스틱주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사도들도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이 백세까지 살아 자연사를 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본 목격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요1:14)고 크게 선포한 이 말씀이 공관복음서에 안나오는 이유가 이 당시에 잘못된 이단사상을 정리시켜 주기 위한 것이 이 책이 기록된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고, 계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경 역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역사적인 진리며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2.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뿐만 아니라 예수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날

날이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만큼 이외에도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건을 역사성만 가지고 기록을 하지않고 안본것을 보았다고 하고 자기말을 첨부한 문서를 외경문서라고 합니다. 예수사건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는데 카톨릭교회는 이것을 정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외경문서를 16세기 종교개혁때 받았습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찍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썼다고 하는 것도 역사성을 또 하나 보충해주는, 그것을 증거로 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 사역의 목격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그리스도 사역의 목격자였습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제일 처음 사건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놓고 저자들이 잘못 베껴서 그렇다 하는 ‘자료설’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구전설’ 즉 구전된 것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제자들이 따라 다녔고 들었고 깨닫고 한 것을 성령이 감동을 주시어서 다시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여기에 기록했다고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입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증언을 해

놓고 순교의 피도장을 하나씩 찍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을 위해 순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요한 외에 나머지는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자기들이 증거해 놓고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4. 예수님의 사역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주님은 자기의 몸되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해 주고 생명이 끊어져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일을 그가 할 것이다.”(요14:12) 지금은 예수님보다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수적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때는 걸어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 더 큰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시록 1:3)

오늘 요한복음 공부를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와 복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획부



서문석 집사

'93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지난해 보다 더욱 알차고, 더욱 보람있게, 그리고 더욱 값진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서울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간 도시에서 찢히고 번거로웠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박두호 집사

우리 교육부에서는 작년과 다르게 교육부서를 나누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장년부에는 유익한 특강과 재미를 더할 레크레이션, 그리고 바닷가에서의 모래찜질 시간이 더할 것이며, 교육부서에는 각 부서마다 유익한 시간으로 짧은 날의 추억을 더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부흥회 시간만큼은 꼭 기대해 주십시오.

시설부



허천우 집사

올해에도 시설부의 사명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은혜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살피고 최선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여름 날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며

진행부



최형열 집사

진행부의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진행자는 아니지만 이번 수련회에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재미있고 보람있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 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의료부



김정임 집사

안녕하세요? 전가족 여름 수련회가 인사드립니다. 의료부에서는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돌봐 드리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급약과 상비약 외에 모기약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이오니 본부실에 한쪽에 자리할 의료부를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세요.

시간 시간 은혜 충만한 수련회를 통해 연합한 육신이 오히려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봉사부



유윤진 장로

우리가 맡은 일은 봉사입니다. 온 성도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식사봉사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청소봉사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서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부



황정욱 집사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은혜를 나누어드릴 예배부를 맡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나 저녁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말씀과 기도속에서 응답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안내부



이동진 집사

이번에는 차량 안내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작년 여름을 생각하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재현하는 느낌이었습니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준비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박차고 약속된 동산에서 만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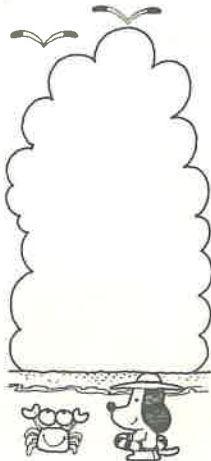
재정부



윤봉진 집사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우리 교회 여름 잔치는 늘 풍성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작년 수련회를 통해서도 서울교회의 하나님어심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더욱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아울러 뜨거운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휴식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순례자칼럼

크리스찬의 불민성

안 의 경 집사(대학부 부강)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동물보다 못한 행동에 익숙해져있고, 얼마나 뻔뻔해져 있는지 모른다. 윤리적인면이나 도덕적인면,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현대인들은 제자리를 상실한채 제가끔 무서운 현실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 인간이 아닌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배가 부르고, 거처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보금자리만 있으면, 욕심을 부린다거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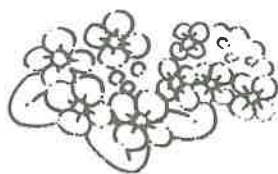
비기독교인은 그렇다고 해도 소위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매일 살겠다고 입만 열면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온갖 불법 행위는, 불법이 불법인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마저 못느끼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앞서고 우선하는 삶의 형태가 되어야 할것이다. 교회다니는 사람이, 더우기 집사, 권사, 장로등의 직분을 가졌다는 분들이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죄와 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나는 주님을 한번 더 십자가에 목박고 창끝으로 주님의 허리를 찌르고 있는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예수님의 가슴에 멍을 들게하고,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못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 우리의 무더진 양심을 깨우라고 외치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마13: -16)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하나님앞에 나갈때요

지금 우리의 결정은 "Yes"



과연의
영소리



은혜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텅빈마음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아담의 후예들. 그래서인지 크리스찬은 이토록 분주한 것일까? 새벽의 단잠, 주말의 느긋함, 휴일의 가족 나들이, 명절 연휴의 귀성, 여름 휴가 계획 등 세상의 달력과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어차피 세상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을 장터로 살아 이마에 구슬땀이 맺히도록 뛰어야 할 가장의 위치에서 때론 갈등을 느끼는 것은 솔직한 고백이다.

주일을 위해 나머지 6일은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참으로 귀한 날이다. 갈급한 영혼의 충족과 피곤한 육신의 안식사이에서 모든 일정이 끝난 주일 저녁이면 낯답이처럼 무거운 피로가 엄습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애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지 않던가. 세상의 부귀 영화는 더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겠노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짧은 광야의 시간이 무슨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있으랴! 비지땀을 흘리며 불편한 잠자리에서 덩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마치 명절을 기다리는 코흘리개의 단순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그리고 텅빈마음만 있으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축복이고 또한 성공적인 것이다. 혼란과 바가지, 전쟁터가 다를 바없는 세상의 바깥스와 성령의 불길로 오는 은혜의 자리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짧은 글 큰 깨달음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 까닭

곽 노 순

어느날 제지는 스승에게 물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오는 것이며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였다.

자네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네.
사탄은 자네에게 관심이 없네.
자네는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서울 가족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복음 사명을 위한 새 예배당을 주소서.
3.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적 축복을 소낙비처럼 부어 주소서.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교회약도

